큰스님 수행한담

알려주는 것이 경전

◇86년 제주도에서 열린 법화산림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사진 기운데).

"경전공부하다 환희 느끼면 그것이 禪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선은 수단일 뿐입니다"

경전은 탐구 아닌 믿음과 수행의 대상
무소유 바르게 이해 실천하면 국난극복

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선교로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교가 우선이니 선이 우선이니 하며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가 어디있고 선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공부만 한다고 해서 교만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내가 경전공부를 하다 느낀 환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만 있다고 선은 아닙니다. 좌선은 수단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나를 관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무엇에든 정신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고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이(不二)입니다.

둘이는 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마인들은 '안장 위에 사람 없고, 안장 밑에 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말이 일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환희심을 체험한 그때부터 공(空)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마치 영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공이 된다고 생각하던 큰 잘못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런 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우리 불교가 그동안 중국불교에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불교는 '모든 존재는 무에서 나온다'는 도교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과 공성(空性)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공성일뿐 물질을 떠나면 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공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공을 산스크리트어로 '수냐(sunya)'라고 합니다. 이 원어는 '팽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산스크리트어 '타(ta)'를 붙이면 '팽창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팽창되는 것이 어찌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공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입니다.

대승은 곧 공사상입니다. 그러나 중국식 사고방식으로 공을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산스크리트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경전을 보면 논서를 보지 않고 옥편만 보고 해석하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해석이며 잘못된 표현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은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또 있습니다. 흔히 '깨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누구에 의해 깨우치는 것입니까. 깨달음은 스스로가 얻는 것입니다.

공은 또 무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소유는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 그래서 버리더라도 아무 부담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 무소유 정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영원히 자기 것인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다 가지고 갑니까. 비단 재가자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승가에서도 욕심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것만을 고집하고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목탁 두드리고 염불만 한다고 승려가 아닙니다. 재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절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불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든 믿음자리 아닌 곳이 없습니다.

평생 경전을 벗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문자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은 이해되고 어떤 경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글자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해탈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이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경도 문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마음 깨우치는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경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만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밤을 새가며 경전을 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늘 곁에 두고 삽니다. 경전 읽는 것은 곧 수행이고 중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리 자랑할 것도 못됩니다만 젊은 스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전 번역서를 내면서 중국식이 아닌 우리식 번역을 하려고 애써 왔는데 힘 닿는데까지 다른 경전들도 우리 불교에 맞게 번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무량수경〉 번역을 마치고 탈고중이고, 〈금강경〉도 번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도 기초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유마경〉은 후학들이나 재가불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대중에게 모두 회향하는 것이 이제 내게 남아있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가르침입니다. 선을 하면서 자기는 저쪽 한편에 제워놓고 열심히 찾습니다. 경을 공부하면서도 자기를 떼어놓고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자기를 찾으려 하면서 자기를 떼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까. 선도 경도 자기를 찾는 방편일 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행복추구라는 가치도 바로 자기를 찾는데 있습니다. 승가의 본분은 어려운 세상을 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요, 재가의 본분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한마음'이라는 단어는 평생을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의 분신들입니다. 큰 물이 각각의 컵에 나누어 담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컵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를 벗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의 가치를 찾는 것이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한마음' 정신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고난의 역사를 짊어지고 왔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 용 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나의 수행생활은 주로 외부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다. 각종 불자모임 결성을 도모하며 자신이 불자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불자들을 한데 묶는데 최선을 다했다. 불자들을 모으고 활동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의 부분들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것이 내겐 큰 공부였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을 무렵 나는 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부회장직을 수행하던 그 해에 10.27법난이 일어났다. 당시 군인들이 법당을 무참히 짓밟으며 불교를 유린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참으로 암담하고 침통하기 그지 없었다. 분한 마음에 군사정부 당국에 항의문을 썼다.

"그렇게 혹독하던 일본 제국시절에도 종교성직자들이 예불 예배할 때는 체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행을 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민족정부가 신도 벗지않고 법당을 짓밟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다."

당국은 일본놈하고 군사정부를 비교 모독했다며 나를 잡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나대로 법관의 영장없이 나를 체포해 갈 수 없다고 당당히 맞섰더니 다른 사람을 데려가 곤욕을 치르게 했다.

이같은 종교탄압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같은 험한 일을 겪으면서 나의 신심은 더욱 굳어갔다.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에 들어가 권익현, 송지영 의원들과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를 만들었다. 송의원이 회장을 내가 부회장을, 권의원이 간사장을 맡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자의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을 엮어나갔다.

정각회에 이어 전직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동우회'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부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에서 고문을 맡아 젊은 불자정치인들과 함께 나라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

경주문화엑스포 홍보인연도 그렇지만 지난세월 동안 많은 인연들이 내 삶을 채워왔다. 그가운에 내가 신조로 삼고 있는 베푸는 삶을 처음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어 준 대구 이영식 목사와의 인연을 잊을 수 없다. 75년 이목사는 곧, 사이판 등지를 돌다 제2차 세계대전때 한국인 정신대나 학도병으로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은 이가 5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나 전쟁 후 전부 화장해 드럼통에 넣어 사이판 숲속에 묻어놨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화장된 드럼통을 찾는 일에 마침 유격대 출신이었던 나에게 연락이 닿아 직접 그곳에 가서 드럼통 찾기를 몇번이나 실패한 후에 77년 '조선인묘'라고 표시된 그것들을 찾아냈다.

10·27 법난때는 군사정부에 항의
"불자 결집하자" 신행모임 만들어

모두 파내니 통이 3개나 됐다.

"불교는 윤회와 환생을 믿으니 불자인 자네가 맡아라"는 이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추념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들을 재화장해서 77년 5월 15일 망향의 동산 휴게소에 안장했다. 이후로 나는 다시 태평양연안에서 죽은 한국인 위령 위한 탑을 81년에 사이판에 세웠다. 파라후 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 마샤르공화국, 사할린등지에도 비석을 세웠다. 지금도 매년 1회 그들을 위한 위령재를 지내고 있으며, 우리동포들이 해외에 끌려가게 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못한 유골과 유가족은 너무나 많다. 이 모든 일을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이 5백여 회원들의 회비로 이뤄내고 있다. 이렇듯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전쟁희생동포 추념사업에 내가 관심을 갖고 오랜동안 이어오고 있는 것도 모두가 나의 철저한 불교적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할 것이다. 〈계속〉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청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로화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청기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